국내 LED 산업 조립단계 머물러

채산성 이유로 적극투자 기피…9300만달러 시장 중 80% 수입

국내 LED(Light Emitted Diode)용 화합물 반도체 자급도가 2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92년 기준 국내 LED시장은 약 9300만달러였는데, 이중 80%인 7440만달러를 수입에 의존했다. LED를 조립·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한국전자, 국제상사, 삼미기술산업, 현대전자산업 등이다.
LED는 조립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큰 약점이다. 또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다.

LED의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(단위:백만달러,%)

구 분	1991	1992	1993	1994	1995	1996	연평균증가율
LED 램프	650	625	650	675	690	700	1.5
LED 디스플레이	375	340	350	360	375	390	0.8
합 계	1,025	965	1,000	1,035	1,065	1,090	1.15

LED의 용도는 파일류 램프, 조명용 광원, 통신용 광원, AV기기, 회로동작의 체크용 표시 램프나 인디케이터, 측정 장치나 검출 장치, 숫자 디스플레이, 그래픽 디스플레이, 광 센서·리모컨 등 민생용에서 산업용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, 디스플레이용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.
디스플레이용 LED는 중·소형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교통 정보판, 전광 뉴스, 옥외 광고탑 등 옥외 분야에서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.
특히 국내 LED 시장의 가장 큰 수요분야로 전망되고 있는 옥외 광고용은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.
세계 LED 램프와 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96년까지 연평균 각각 1.5%, 0.8%,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한편, LED를 포함한 Optoelectronics분야는 초기시장 형성 단계에 있어 규모면에서는 미미하지만, 향후 12%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1993/7/5>